지역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 뭉쳤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 출범…위촉직 60명 구성

20대 한명도 없고 60대 이상 절반 차지는 아쉬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20대 청년층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반면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시정 자문기구로 공동 위원장인 이용섭 시장, 황영성 전 광주 시립미술관장 등 모두 60명으로 구성됐다.

임원식 광주 예총 회장을 비롯한 박진현 광주일보 제작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김포천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이명한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회장, 천득염 전남대 석좌교수 등 예술인, 기획자, 언론인,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2개 분과를 두고 분기마다 모여 정책과 현안을 조언하고 문화예술은 물론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갈등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위원들은 민관의 소통 창구로, 문화 예술인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청년예술인 지원 방안 논의, 지역 사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광주시의 향후 문화정책 방향인 '품격있는 문화일류도시 광주' 만들기에도 적극 동참한다.

문화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에 따라 ▲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중심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예술관광도시 ▲첨단기술 기반에 가치를 더한 문화산업도시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체육도시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위촉직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영성 전 광주 시립미술관장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는 문화가 곧 경제고 일자리라는 인식으로 문화 경제부시장을 신설했지만, 민선 7기 2년을 지나면서 냉정히 평가해보면 문화예술인과 소통이 원만했는지에는 의문이 든다"며 "소통을 더 원활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려고 각 분야 원로,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위원 구성원이 연령이 50대 이상 남성에 편중돼 있어 향후 광주시의 문화정책이 여성과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총 60명의 위원 중 남성 43명(75%), 여성 17명(25%)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대도 30대 1명(2%), 40대 15명(24%), 50대 16명(27%), 60대 12명(20%), 70대 이상 16명(27%) 등으로 50대 이상이 74%나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이 47%로 절반 가까이였다.

광주의 한 예술인은 "지금이라도 문화예술정책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20대 위원은 한명도 없고, 30대까지 포함해도 1명뿐이다. 문화 예술계를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품격있는 일류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참석,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지사, '해상풍력단지·의대 설립' 정부 건의

산자부·복지부 장관 면담…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사업 지원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전남도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의과대학 설립에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신안군 일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공약이자, 정부 그린뉴딜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상시 일자리 4000개를 비롯한 모두 12만여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전남도의 목표"라며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고, 연구개발 과제 19건에 대한 국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산업부 소관 현안인 LNG(액화천연가스) 극저온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과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박 장관에게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남지역에 의대를 설립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보장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방문에 앞서 서울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남도 의대 유치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8·9급 지방공무원 시험 13일 치른다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자 별도 장소서 시험

전남도는 올해 제2회 8·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13일 도내 24개 시험장에서 치른다.

이번 필기시험 원서접수인원은 1만 1769명으로, 이 가운데 14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시험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심각단계에서 실시된 만큼 수험생 1만여 명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촘촘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방역대책으로 수험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당초보다 시험장 7개소, 시험실 150실을 추가로 늘려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모든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손소독과 발열검사를 받아야 입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방역책임관·방역요원 등 144명을 시험장에 파견해 방역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 발생 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사전신청기간인 오는 12일까지 신청한 응시자에 한해서 별도 장소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고동석 전남도 총무과장은 "이번 임용 필기시험은 '생활속 거리두기' 대응단계에 치러진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며 "수험생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8월 17일 예정이며, 향후 면접시험(8월 24일~9월 4일)을 거쳐 오는 9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다음달 개원 광주 사회서비스원 준비 속도

초대 원장 조호권 선임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7월 1일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원 법인 설립 허가와 함께 원장 등 이사 11명, 감사 2명 취임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초대 원장에는 광주시의회 6대 의장을 지낸 조호권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이 선임됐다. 또 함철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손재홍 광주 노인복지협회 회장, 박종민 광주 복지 공감 공동대표, 정찬기 광주경실련 집행위원 등도 비상임 이사에 선임됐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원장 등 임원 임명 절차를 마치고 첫 이사회를 열어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빛고을 노인건강 타운, 효령 노인복지 타운,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 보호작업장 등 광주 복지재단이 운영해온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련 노조의 반발 등을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평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복지 현장, 노조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사회적기업 '한글피움', 지역 자산화사업 선정

물류 창고 주민 커뮤니티 조성

광주시는 "광주지역 사회적기업 '한글피움'이 행정안전부의 '2020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 예비대상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지역의 방치된 공간을 매입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글피움은 국비 지원을 받아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방치된 물류 창고를 리모델링해 판매장, 공연장 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2013년 설립하고 2014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한글피움은 문화콘텐츠 디자인·상품 제작 업체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농협의 대출 심사를 거쳐 1건당 최대 5억원 융자,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구종천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는 전국 61개 민간단체가 응모한 가운데 행안부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20개가 선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